



28일 오후 전남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동부권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에서 경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훈·민형배·주철현·강기정·김영록 후보 /뉴스시스

특별시장 경선후보 '국립의대 해법' 기싸움 팽팽

6·3전남광주

“순천대와 목포대, 반반 나누자” VS “정원100명 한곳에 뒹아” 대립
정책배심원들 “의대 설립 답답, 실질적 의료서비스 제공은 언제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가 28일 순천대학교 조석홀에서 열린 가운데, 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 국립의대·병원 설립 및 위치'를 놓고 후보들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민형배·주철현·강기정·김영록(기호순) 후보는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의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후보들은 전남 의대 정원 배분 방식에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주철현 후보는 “국립의대는 통합 대학 형태로 한 곳에 두고, 순천과 목포 양 캠퍼스에서 50명씩 분산 모집해 교육하는 방

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은 본원과 분원 개념을 도입해 순천과 목포 양 지역에 모두 설립해야 한다”며 동부권과 서부권을 아우르는 균형 배분을 강조했다.

김영록 후보는 “양 대학의 통합을 통한 하나의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정부가 인정할 방향”이라며 “대학의 의사에 맡겨 하나의 의대 체제 아래에서 병원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기정 후보는 이러한 견해를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강 후보는 “50대 50 분산 배치는 무책임한 타협이자 비현실적인 희망 고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대학 통합에 합의했다지만 일부 위치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순천대에서 의대 정원 100명을 교육하고, 목포에는 빅5 병원 부속병원을 설립해 의료복지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후보는 “의대 위치를 두고 50대 50으로 나누는 방식은 의료계나 교수진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속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 주권이 제대로 작동할 때 합리적인 위치 선정이 가능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민형배 후보는 “역사적 가치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의대 설립 문제를 포함한 지역 내 차별과 갈등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한 평가와 진실 규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배심원들은 의대 유치와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두고 후보들 간 설전이 이어지자, 보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순천대와 목포대에 맡기보다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 탄생과 함께 기존 전남 지역이 요구해 온 의료 기반 시설이 얼마나 도입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명확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기동취재부

기억식·문화제·전시까지 세월호 12주기 추모 물결

4월 한달 간 추모기간 선포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거처돼 있는 전남 목포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25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를 세월호 12주기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기억식과 기억문화제 등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4월16일 오후 3시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린다.

기억식은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건설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416세월호청소년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0416 단원과 가족협의회, 추모사, 연대사, 추모공연, 세월호 12주기 선언문 낭독, 추모문화제, 노란 종이비행기 날리기 기억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매년 세월호 선체 앞에서 열리는 기억식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고, 희생자를 위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사이다.

19일 오후 2시부터는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 기억문화제’가 진행된다.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시작으로 기억사, 기억시 낭송, 기억 편지·공인, 청소년 문화공연, 시민 참여 퍼포먼스 등이 예정됐다.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5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공모전’도 진행된다.

‘세월호의 다짐과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미

숄작품 공모전은 전남지역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바람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는 전남남도교육감과 416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의 시상은 물론 수상작 전시회도 갖게 된다.

매년 세월호 추모기간에 진행됐던 공모전은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6월5일부터 작품 공모에 들어간다. 수상자 발표는 7월7일 시상식은 7월 24일이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독립영화 ‘주희에게’와 ‘침묵 10년, 제로섬’ 등을 상영하는 ‘목포 기억상영회’와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창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목포 기억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관계자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참사의 원인규명은 물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슬픔을 뛰어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416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다짐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목포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세월호 잊지않기 홍보활동과 안전한 사회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염선호 기자

건축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청소 전

청소 후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 아파트(준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텔,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을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시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청소 전

청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10호

유한드론솔루션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